

■ 주요 기사

○ 佛 ‘비접속권리법’ 관련(3건)

중앙	프랑스, 퇴근 후 업무 문자·메일 금지
동아	佛직장인, 근무시간外 업무 e메일 안 볼 권리 보장받는다
한겨레	프랑스, 새해부터 업무 외 시간에 이메일 안 볼 권리 준다

○ 가습기살균제 관련(2건)

중앙	[간추린 뉴스] 모든 방향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 금지
한겨레	‘제2가습기살균제 사건’ 막기...화학 위험물질 정보 제공한다

■ 주요 칼럼·사설

○ 저출산 관련(1건)

조선	[기고] 출산 장려, 백화점식 혜택으론 안 돼 (김상호 한국 보사연 원장)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고용 복지	제목	[기고] 출산 장려, 백화점식 혜택으로 안 돼 (김상호 한국보사연 원장) A39면
		내용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때
		제목	생산가능인구 줄어드는데… 손 놓은 한국 B9면
		내용	올해부터 한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본격적으로 감소. 전문가들은 “노동력이 줄면 소비 주력층 감소로 이어져 오랜 소비 절벽을 만들게 되니 서둘러 경제성장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
중앙	노동	제목	프랑스, 퇴근 후 업무 문자·메일 금지 A21면
		내용	프랑스에서 올해부터 근무시간 외에 디지털 기기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계약법 개정안이 발효된다.
		제목	[서소문 포럼] 새해 다시 꺼내 든 반계수록과 100년 뒤 한국 A32면
		내용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금융개혁, 국방개혁, 규제개혁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400여 년 전 반계가 내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들이 좌초한 이유도 반계수록이 인쇄되지 못한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환경	제목	[간추린 뉴스] 모든 방향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 금지 A21면
		내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불러온 화학물질은 올 3월부터 모든 형태의 방향제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동아	노동	제목	구조개혁 미흡해 좁아진 취업문… “능력보다 인맥이 열쇠” A3면
		내용	20년간 기회의 문이 좁아진 원인은 ‘미완의 개혁’에 있음. 외환위기 이후 고용 유연화 등의 노동개혁이 진행됐으나, 은행, 대기업 등은 힘센 노동조합을 등에 업은 정규직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면서 개혁 무풍지대가 되며 양극화
		제목	佛직장인, 근무시간外 업무 e메일 안 볼 권리 보장받는다 A25면
		내용	1일 발효된 프랑스의 새 근로계약법은 직원 50명 이상 사업체가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않을 권리를 두고 직원들과 협상하고, 이를 문서로 명시
매경	노동	제목	한국 노동시장도 '갈라파고스' A5면
		내용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던 해외 취업·창업 지원제도는 허울만 좋은 예산 낭비로 끝났고,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대부분 비숙련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음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겨레	노동	제목	“노동자 짓밟고 ‘빨갱이’로 몰아”…노동배제 정책 시작됐다 6면
		내용	제일모직 공채 1기 나경일씨, 4·19혁명 직후 노조 만들자 사측 3일만에 공장폐쇄 강행하고, 어용노조 만들어 이간질
		제목	프랑스, 새해부터 업무 외 시간에 이메일 안 볼 권리 준다 22면
		내용	프랑스에서는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들이 종업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않을 시간을 보장해주는 ‘비접속 권리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1월1일부터 발효
	환경	제목	‘제2가습기살균제 사건’ 막기…화학 위험물질 정보 제공한다 27면
		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화학물질에 위험물질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 금일 한국경제, 경향신문은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끝>